

지역 소식통

고창군,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습회 개최

대한축구협회(KFA)가 주관하고 아시아축구연맹(AFC)이 인증하는 AFC 지도자 강습회가 고창군 스포츠타운에서 열린다. 지난 14일 시작한 F급 강습회를 시작으로 올해 A급 B급 C급 강습회 등 올해에만 모두 8차례나 예정돼 있다. F급 강습회는 아시아 국가 리그 감독이나 대표팀 코칭스태프를 양성하는 최고 수준의 전문 교육과정이다.

전·현직 프로축구 선수와 지도자 200여명이 참가하며 대한축구협회 전임 강사인 미하엘 뮐러를 비롯해 김남표, 이임생, 정해성, 최성환, 김덕현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지도자 강습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의 깨끗한 자연환경, 신선한 제철 먹거리, 수준급의 체육인프라, 군민들의 친절함 배려 덕분에 선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진로 신호등 펼쳐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진로탐색 진로 신호등 사업을 8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격포초등학교 5~6학년생 26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청소년진로탐색사업은 청소년의 진로 발달 진로 흥미와 적성을 알아보고 직업적 성격 특성에 맞는 진로 탐색을 할 수 있게 도와 자신의 미래 진로, 직업을 준비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한다.

이날 참가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흥미에 대해 일기 적고, 평소 선호하고 희망한 직업과 성격적 특성을 비교해 보면서 미래 진로 계획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

부안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유인숙)는 "청소년진로탐색사업을 통해 청소년의 진로 생활에 초록 신호등이 켜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부안=김석진기자

도심 숲길 연속성 접근성 도모

정읍시,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 '타당성 용역착수'

정읍시의 관문인 말고개 공원과 장명 정수장을 잇는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가 생길 전망이다.

시는 도심권 숲길 네트워크 연속성 확보와 도심 탐방로 확보로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 사업의 골자는 말고개 공원과 장명 정수장을 잇는 180m 길이의 연결다리를 설치하는 것이다.

다리는 성황산 종턱과 칠보산 끝자락에 조성하며 산책로를 마련해 다리



를 걸어가면서 아래 전망과 도심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스틸 만점의 관광자원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15일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적 파급효과, 국·내외 사

례 등을 조사하고 다양한 다리유형 분석과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말고개 숲 향기 탐방로 연결다리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회를 가졌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말고개 연결다리 설치사업의 최적의 안을 도출해 시민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상화차거리 등 주변의 경쟁력 있는 관광지와 연계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외부 방문객의 도심 유입을 유도해 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인상... 유공자 예우 강화

정읍시, 월 10만원 지급

정읍시가 3월부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보훈 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월 9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지난 15일 개정하고, 올해 호국보훈수당 관련 예산 22억 3,128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21억 2,328만원에서 1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1~2월 인상분은 3월 수당에 소급 적용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지역 내



정읍시가 3월부터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을 인상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유공자는 1,986명이다.

시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부터 호국보훈수당을 월 2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후 점진적으로 인상해 현재 월 10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며 꾸준히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강화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읍·면·동 순회 시민과의 공감 대화로 지역 현안 해결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시민과 소통하며 감동시정 구현에 힘을 쏟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관 소통이 단절되고, 경기 침체로 지역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찬 정읍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시민과의 공감 대화'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과의 공감 대화는 읍·면·동 각계각층의 시민을 직접 만나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함께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적극행정과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읍 발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시민과의 공감 대화는 '함께하는 소통, 도약하는 정읍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18일 초산동과 이평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행사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을 의무화하고,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석을 허용했으며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동진면은 16일 동진초등학교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2년 동진면 생생소통 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안'

부안 동진면, 2022년 군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성황리 종료

부안 동진면은 16일 동진초등학교 강당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2022년 동진면 생생소통 대화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동진면 노인회장 윤석남 회장의 장학금 기탁식을 시작으로 면정 주요업무 보고, 군정비전공유, 주민과의 생생소통 대화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종승 동진면장은 "부안세계잼버리의 시작, 준비된 동진"을 주제로 동진면의 주요 업무를 보고하였으며, 권익현 부안군수는 "군민과 함께 여는 미래 부안" 슬로건으로 2022년 군정비전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를 가진 후 군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생생소통대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동진면 게이트볼장과 주민행복 사업지 등 민생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동진면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일정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종승 동진면장은 "2022년은 민민의 의견을 귀담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주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모든 면민들이 체감하는 소통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무장면, 무료 '햇살 좋은 빨래터' 문 열어

고창군 무장면에 지난 15일 취약계층에 무료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햇살 좋은 빨래터'가 문을 열었다.

무장읍사무소도서관 한 칸에 세탁기(24kg)와 건조기(20kg) 각 2대를 갖췄다. 운영에 필요한 재료가(세제, 이불포장지)는 무장읍력기부나눔 후원금이 활용될 예정이다.

햇살 좋은 빨래터는 무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축이 돼 거동이 불편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해 이불 세탁이 어려운 가구를 마을별로 선정하여 이불 수거·세탁·전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동시에 취약계층의 안부확인도 진행할 수 있어 주민이 이용할 때는 공공서비스의 구성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창군수는 "위생에 취약한 가구의

폐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이불세탁 서비스가 필요한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창군 '햇살 좋은 빨래터' 사업은 지역 주민의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높아 이상 상하, 신림, 부안 성송면에도 추가로 설치하여 주민밀착형 이불세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